

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21호 | 발행인: 이영 | 발행일: 2014년 01월 10일 | 발행처: 육아정책연구소

01 January

이 시대 영유아 행복 수준을 진단하다

I. 영유아 행복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

- 최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.
 - ▶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영유아를 접근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영유아기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.
 - ▶ 영유아기의 행복은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구성원 전체의 행복 추구를 위해 영유아의 행복은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음.

II. 국제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영유아의 행복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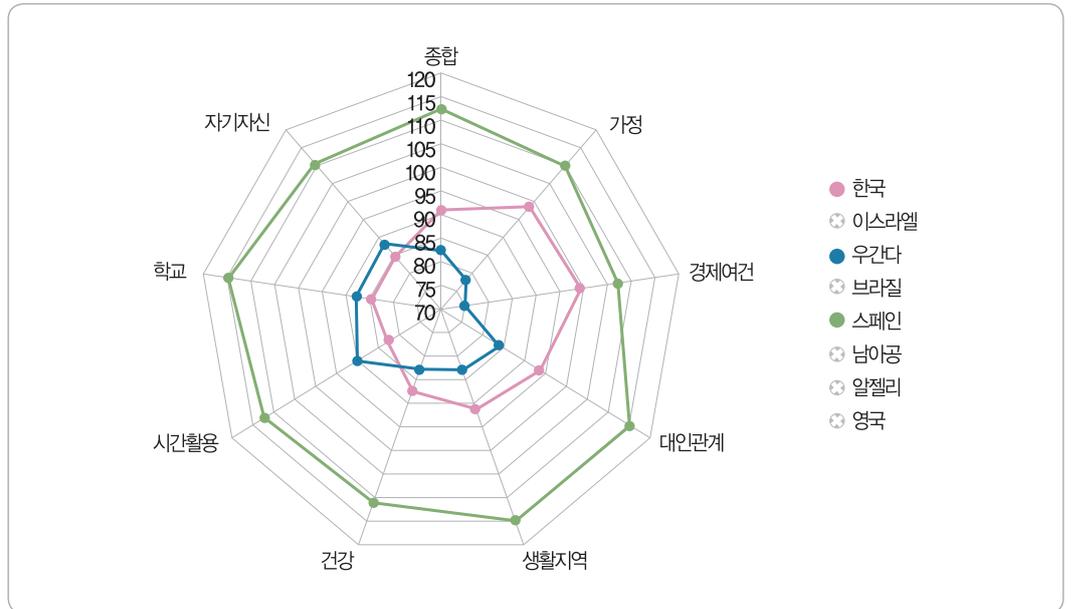
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, 우리나라 영유아는 사교육을 포함한 충분한 교육적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,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.

- OECD 국가 간 영유아 웰빙을 6개 영역(물질적 웰빙, 건강과 안전, 교육적 복지, 주거와 환경, 학교생활의 질, 위험행동)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, 가계소득이나 저소득층 가정 내 영유아 비율 측면에서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임(OECD, 2009).
 - ▶ 교육적 복지와 위험행동 영역에서 한국의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교육적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음.
 - ▶ 하지만, 충분한 교육적 기회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나 조기교육, 필요 이상의 기관 이용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행복과 상충될 수 있음.
 - ▶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이나 영유아의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
-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연구(이봉주·유민상, 2013)에서 한국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수치화한 결과 한국은 7.31점(10점 만점)으로 조사대상 8개국(한국, 미국, 영국, 이스라엘, 스페인, 브라질, 남아프리카공화국, 알제리) 중 7위에 그침.



아동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빈도,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정도에 대해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, 전반적인 삶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.

- ▶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1인당 GDP가 우리의 1/5 수준인 알제리(6위, 7.97점)보다 낮음.
- ▶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와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8위로 나타났으며 가족/집과 대인관계의 만족도도 모두 7위로 최하위권임.
- ▶ ‘가족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갖는가’와 ‘어른이 어린이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는가’에 대한 질문에서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.



자료: 동아닷컴(2013. 5. 28). 한국 어린이,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.

[그림 1] 아동의 행복종합지수 비교 - 한국, 우간다, 스페인

- 이상의 국제 지표에 의하면, 우리나라 영유아의 행복은 경제적·물리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나 영유아의 정서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음.

Ⅲ. 영유아 행복 관련 환경의 현주소

- 우리나라 영유아 행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없으나 다음의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자료를 통해 영유아의 행복 수준을 갈음할 수 있음.
-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은 2007년 695억원에서 2012년 2,084억원으로 3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4.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(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2).

영유아 행복에 가장 중심적인 환경은 가정환경으로, 특히 빈곤선 미만 가정의 31.5%가 이혼가구, 사별가구가 17.3%로 나타나 아동의 경제적 빈곤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음.

영유아의 행복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6,058건으로 2003년에 비해 2.07배나 늘어났으며, 특히 정서학대가 두드러짐.

요보호아동의 발생 수는 2003년에 비해 36.6% 정도로 줄었으나, 요보호아동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절실함.

- ▶ 요보호아동 예산 비중이 2007년 39.0%에서 2012년 24.2%로 낮아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간과됨.
- 영유아 행복에 가장 중심적인 환경은 '가정'으로 부모와 가정환경의 역할이 중요함.
 - ▶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조사한 결과,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역량수준을 보이며, 아버지의 부모역량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(장혜진·윤은주·김해인, 2013).
 - ▶ 아동이 속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빈곤선 미만 가정의 31.5%가 이혼가구, 17.3%가 사별가구로 나타나(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2) 경제적 빈곤 및 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우려됨.
- 영유아의 기관 이용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기관 이용은 영유아의 행복과 상충됨.
 - ▶ 영아기의 장시간 기관 이용은 발달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(Belsky, 1988) 보육시설을 경험하는 영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오전에 비해 오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(Watamura, S., Donzella, B., Alwin, J., & Gunnar, M., 2003).
 - ▶ 영아의 기관 평균 이용시간은 0세부터 2세까지 각각 7시간, 7시간 16분, 7시간 29분으로 5세의 평균인 7시간 47분과 크게 다르지 않음(보건복지부·육아정책연구소, 2013).
 - ▶ 0세의 경우, 이용시간의 편차가 커 5시간 이하인 경우가 30.5%이나 10시간 이상인 경우는 16.2%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과 비교 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(보건복지부·육아정책연구소, 2013).
-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.
 - ▶ 2011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,058건으로 1일당 평균 16.6건이며 이는 2003년에 비해 2.07배 늘어난 수치임(보건복지부, 2012).
 - ▶ 유형별로 보면 중복지학대, 방임, 정서학대, 신체학대, 성학대, 유기 순이며 이 중에서 정서학대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져 2003년 대비 4.4배 증가하였음.
 - ▶ 중복지학대 비율이 전체 건수의 40%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줌.
- 요보호아동의 발생 수는 2003년 21,882명에서 2012년 8,003명으로 이전 대비 36.6%로 감소하였으나(보건복지부, 2013) 요보호아동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.
 - ▶ 2012년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은 미혼모아 등이 28.7%, 부모이혼이 24.2%, 학대가 16.2%를 차지함.
 - ▶ 미혼모아의 1일 평균 출생 수는 5.45명으로 출생 전부터 미혼모와 자녀 대상 정책 지원 강화가 요구됨.

IV. 영유아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

- 취약한 환경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가 요구됨.
 - ▶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이나 영유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영유아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함.
 - ▶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이 요구됨.
 - ▶ 영유아 조기교육, 사교육, 지나친 기관 이용에 따른 영유아 실태 연구가 필요함.
- 영유아 행복을 위해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함.
 - ▶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,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(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2) 영유아 부모 대상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.
 - ▶ 특히 일·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내실화가 필수적임.
-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기관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.
 - ▶ 사회 전반에 영유아와 놀이 중심의 환경을 지향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함.
 - ▶ 연장보육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과도한 기관 이용을 예방함.
- 영유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.
 - ▶ 다양한 부모교육(직장인 점심시간을 활용한 부모교육,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는 아버지교육, 중·고등·대학생 대상이나 군 복무 기간을 이용한 예비부모교육 등)을 통해 부모역할의 인식 및 실천의지를 강화함.
 - ▶ 아버지의 육아참여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역량을 높임.

가정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한 상호작용 증진, 사회적으로는 영유아의 행복을 저해하는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행복한 육아가 가능한 사회여건을 조성함.

장혜진 부연구위원 hjjang@kicce.re.kr

· 동아닷컴(2013. 5. 28). 한국 어린이,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. http://news.donga.com/Issue/Top_03010000000006에서 2013. 6. 22 발췌함.

· 보건복지부(2012). 보건복지통계연보.

· 보건복지부(2013).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.

· 보건복지부·육아정책연구소(2013).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-가구조사 보고.

·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2).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.

· 이봉주·유민상(2013).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연구: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.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, 서울.

· 장혜진·윤은주·김해인(2013).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.

· Belsky, J. (1988).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. *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*, 3, 235-272.

· OECD(2009). Doing better for children.

· Watamura, S., Donzella, B., Alwin, J., & Gunnar, M. (2003). Morning-to-Afternoon Increase in Cortisol Concentra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at Child Care: Age Differences and Behavior Correlates. *Child Development*, 74(4), 1006-1020.